



지난 23일 막을 내린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 노하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벤스, 바로크 걸작' 전시 성과는?

광주 전시 문화 업그레이드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블루버스터 전시회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 16일~11월 23일·이하 루벤스전)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루벤스전은 그동안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지 못했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작품 보존 등 미술관의 전시노하우를 끌어 올리는 등 지역 전시 문화를 바꿔놓았다.

특히 루벤스전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중 역대 관람객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2008 광주비엔날레(9월 9일~11월 9일)와 전시기간이 겹쳐 관람객이 분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큰 수확을 거둔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루벤스전이 거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전시장을 자주 찾지 않던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시립미술관이 지난 7월 31일~8월 19일까지 루벤스전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3명 중 52%인 494명이 이번 루벤스전을 통해 처음으로 시립미술관을 찾았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 전시회의 홍보

■광주시립미술관 역대 관람객 순위

순위	전시명	관람객	연도
1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전	10만명	1994년
2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7만5천명	2008년
3	일리아 레핀 광주특별전	5만명	1996년
4	즐거움 미술여행	4만명	2006년
5	봄날은 간다	3만명	2008년

를 받으며 시립미술관 직원들은 작품을 확대경으로 꼼꼼히 살펴 컨디션리포트를 작성하고, 전시장의 적정 실내 온도(18~22도)와 습도(55%)를 맞추는 요령을 터득했다.

또 이번 전시를 열기 위해 시립미술관은 온도·습도계 10여대를 구입해 전시장 곳곳에 설치했고, 제습기도 8대를 사들였다. 이번 루벤스전이 그동안 고온 다습한 한국 특유의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발다른 안전장치 없이 작품을 보관·전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 미술관의 전시 노하우를 터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박지택 관장은 "이제 광주에서도 세계의 유명 전시를 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작품 보존 기술도 늘어 소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루벤스전은 오는 12월 10일~2009년 3월 1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연다. 입장료는 유아 7천원, 초·중·고생 9천원, 일반 1만2천원. 문의 1544-459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황 속 역대 관람객 2위 흥행 '대박'

시립미술관 홍보·전시 노하우 키워

흥행에도 성공했다. <표 참고> 광주 시립미술관 사상 최대 관람객(10만명)을 기록한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전(94년)'의 경우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정책적으로 관람을 유도했다면 이번 루벤스 명화전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미술전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시립미술관은 24일 "지난 23일 막을 내린 루벤스전에 7만5천여명이 다녀갔고, 이 중 성인관람객이 6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흔히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블루버스터 전시의 특성상 10만명 이상을 흥행 가이드라인으로 여기지만,

지난 다름없던 광주에서 루벤스 명화전의 흥행은 이후 다른 블루버스터 전시회 뿐 아니라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루벤스전은 시립미술관의 전시 기획력과 작품 보존 능력을 끌어올리는 부수적이 효과도 컸다. 이번에 전시된 루벤스의 대표작 '삼미신' 등 대부분의 작품은 17세기에 제작돼 전시 자체가 까다로웠다. 이에 작품을 대어준 오스트리아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측이 작품복원사 아스트리트 레너(Astrid Lehner)씨를 파견, 시립미술관에 작품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줬다. 아스트리트 레너씨의 도움

'청년 작가 등용문' 광주미술상 공모

12월 10일까지 접수... 상금 2배 늘려 1천만원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균·사진·이하 운영위원회)가 청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4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를 공모한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려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30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응모 희망자는 포트폴리오 등을 마감 일인 오는 12월 10일(당일 도착)까지 운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작가 본인도 응모할 수 있으며, 제3자 추천, 운영위원 추천도



가능하다. 본심 및 시상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본심 당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당선자를 뽑는다. 수상자 1명에게는 1천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주어지고, 차석 2명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여한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그동안 신창운, 김도기, 김숙빈씨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3162-59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놀이패 신명 "역사야 마당에서 놀자"

28일~12월 13일 광주 영상예술센터

'해학과 신명이 어우러진 마당놀이로 초대합니다.'

지난 1982년 창단된 놀이패 신명은 우리 전통 연희 양식인 '마당극'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왔다. 굴곡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대면서도 해학과 풍자, 눈물을 잃지 않은 작품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민초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왔다.

신명이 자신들의 대표작을 연속해서 무대에 올리는 '역사야... 마당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8일~12월 13일(매주 28~29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광주 영상예술센터, 28~29일 무대에 오르는 마당극 '술래소리'는 지난 2005년 초연된 작품으로 임제왜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5·18, 6·15 공동선언 등 역사적 사건들을 강강술래의 다양한 놀이로 풀어낸 마당극이다.

마당극 '꽃등 들어 남 오시면'(12월 5일~6일)은 인간이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죽음'의 문제를 신명난 곳으로 풀어낸 작품.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이 돋보이는 '다시레기'를 재구성한 마당극으로 망자탈춤, 양복춤, 상여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12월과 13일에는 '일어서는 사람들'을 공연한다. 1997년 초연된 '일어서는 사람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5만명 넘게 관람한 인기작이다. 특히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곳곳



'꽃등 들어 남 오시면'

에서 공연돼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했다. '일어서는 사람들'은 사랑스런 아들 일팔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광주 부부의 흥겨운 하루로부터 시작된다. 광주 시민들의 5월 투쟁과 해방 광주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며 도청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일팔이의 죽음을 확인한 광주 부부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당극의 재미는 관객들과 배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뒷풀이에 있다. 세 작품 모두 흥겨운 대동마당이 마련돼 있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8천원.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감사 앞두고

직원들 보안각서 '집안 단속...'

수의계약 납발과 무원칙한 인사 등으로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을 받았던 광주디자인센터가 최근 시 내부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받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각서를 받았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이 각서는 '디자인센터 내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자인센터의 보안각서 요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광주시 내부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집안 단속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어

는 기관이나 복무규정에 비밀유지 규정이 있고 최근 시의회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구체적으로 징계하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단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설사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4일부터 광주디자인센터를 상대로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와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식 카바레 나이트
무오후 5시 - 9시30분
2무오후 9시30분 - 새벽 2시

한소리밴드 최동호! VIP통완비

서울카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

홍익 어린이영어학원
봄/선/동 아이엔리시아

www.inyasia.com 0621671-1199